

홍콩문학의 독자성과 범주*

金會峻**

<목 차>

1. 머리말
2. 홍콩문학의 독자성
3. 홍콩문학의 범주
4. 맺음말

1. 머리말

1997년 7월 1일, 홍콩이 중국에 반환됐다.

홍콩의 중국 반환은 중국과 홍콩 자체는 물론 전 세계에게 많은 과제를 부여했다. 식민주의 시대의 청산과 이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세계 협력, 한 국가 내에서 사회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의 공존이라는 ‘1국 2체제’의 실험, 이른바 ‘중화경제권’의 성립 가능성과 관련한 다양한 대처 ……등.

물론 홍콩의 중국 반환이 제기한 문제가 경제 및 정치적 방면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홍콩이 가진 특별한 경험과 환경이 모든 방면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문화와 사회라는 측면에서 보자. 아편전쟁의 결과로 1842년에 영국의 식민지가 된 이래 150여 년에 걸친 동방문화와 서방문화의 적극적인 교류 접촉,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전후부터 약 50년 간의 좌익사상과 우익사상의 간접적인 대립 경쟁, 궁극적으로는 식민지라는 한계가 주어졌던 정치적 환경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상당히 자유로웠던 언론 상황, 상업적이고

* 이 논문을 고 黃繼持 香港中文大學 教授에게 바친다.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를 지원받아 작성되었다.

** 釜山大 中文科 教授

도시적 환경 하에서 나타난 각종 사회 현상 등은, 오늘날 이질적 문화간의 상호 영향성 및 문화와 사회의 관련성이란 측면에서 볼 때 매우 풍부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것이다.

홍콩문학 역시 그런 점에서 대단히 주목할 만한 분야다. 홍콩의 특수한 상황은 당연히 홍콩문학이 여타 지역의 문학과 구별되는 모종의 독자성을 부여했다. 그리고 그러한 독자성은 세계문학,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문학에서 홍콩문학이 특별한 의미를 갖도록 만들었다. 이런 면에서 홍콩문학에 대한 연구가 1980년대 이래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커다란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예컨대 근래에는 무려 760쪽에 달하는 劉登翰 主編, 《香港文學史》(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9)를 비롯하여 古遠清, 《香港當代文學批評史》(武漢: 湖北教育出版社, 1997)와 袁良駿, 《香港小說史》(深圳: 海天出版社, 1999) 등 수종의 문학사와 장르사까지 출판되었는데, 이것은 홍콩문학에 대한 연구가 이미 초보적인 관심 단계를 거쳐 본격적인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대단히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홍콩문학에 대한 관심이 극히 미미한 듯하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우리의 연구 상황을 고려하여, 홍콩문학의 독자성과 범주 등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것은 기존의 성과를 점검, 평가해봄과 동시에 더욱 유효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기초적 작업으로부터 우리 나름의 연구를 전개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하기 때문이다.

2. 홍콩문학의 독자성

우선 ‘홍콩문학’이라는 개념이 과연 성립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부터 제기할 수 있다. 1970년대만 해도 상당수 사람들은 심지어 홍콩에는 문학이 존재하지 않는다 내지는 홍콩에는 우수한 문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식의 소위 ‘문학사막론’을 펼쳤고, 그런 주장은 1980년대 말까지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³⁾ 그러나 후시 홍콩에서 문학이 충분히 중시되는 못했는지 몰라도 문학 또는 문학행위 그 자체가

없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더군다나 홍콩의 문학 작품 중 상당수는 작품 그 자체로도 대단히 높은 수준이었을 뿐만 아니라 문학사적 의미에서도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중국대륙작가 王蒙의 <布禮>, <春之聲> 등 일부 작품은 중국 당대에서 처음으로 의식의 흐름 수법을 사용한 소설이라고 높이 평가되고 있는데, 홍콩작가 劉以鬯이 발표한 <酒徒>는 시기상으로는나 내심의 표현이나 기법의 운용면에서 그 모더니즘적 정도가 명확하게 전자를 능가하고 있다.⁴⁾

사실 ‘홍콩문학’이라는 개념의 성립 여부는 단순히 홍콩에 문학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우수한 문학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차원의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홍콩문학이 그만의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중국문학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또 그것은 과연 중국대륙의 어느 한 지역 문학, 예컨대 베이징문학이라든가 상하이문학과 같은 차원의 것인가 아니면 타이완문학처럼 중국대륙문학 전체와 병립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이다.

홍콩은 자본주의 대도시 지역으로서 경제, 정치,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중국대륙과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곳의 문학이 중국대륙의 문학과 구별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쉽사리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홍콩은 동방문화와 서방문화, 좌익사상과 우익사상, 정치적 통제와 언론의 자유, 상업적 도시적 환경 등의 혼재와 사통팔달의 지리적 위치…… 등의 특수한 환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문학 역시 중국대륙의 문학은 물론 타이완의 문학과도 구별되는 그 자신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다른가?

홍콩의 영국식민정부(이하 홍콩정청이라고 함)는 그들의 통치를 정면 부정한다거나 심각한 위해가 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인정했

3) 1989년 4월에 있었던 第四屆全國臺灣香港暨海外華文文學學術研討會에서는 홍콩에 과연 문학이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가 다시금 논의의 초점이 되었다. 復旦大學臺灣香港文化研究所 選編, 《臺灣香港暨海外華文文學論文選》, (福州: 海峽文藝出版社, 1990) 및 文牛, <在世界文學格局中探討臺灣及海外華文文學: 全國第四屆臺灣香港暨海外華文文學學術討論會述略>, 《中國現代當代文學研究》, 北京: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中心 1989-8, 247쪽 참고.

4) 楊巨漢, <學術語境中的香港文學研究>, 《中國現代當代文學研究》, 北京: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中心 2001-11, 192쪽.

다.⁵⁾ 이 점은 1949년 중국이 분단된 후에 더욱 현저하게 표출되어, 홍콩정청은 중국대륙과 타이완 또는 좌익사상과 우익사상에 대해 대체로 직접적인 의사 표명은 절제하면서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태도를 취했다. 이에 따라 홍콩문단에는 특정한 문예정책이 강요되지도 않았으며 특정한 이데올로기가 지배하지도 않았고, 작가들은 사상면에서 별다른 구속 없이 자유롭게 사고하고 창작하고 발표할 수 있었다. 홍콩에서는 종래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예논쟁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도, 작가들의 관심이 다양하고 상호 다원성을 인정한 것, 도시생활의 압박으로 인해 미처 타인의 주장에 집중적으로 대응할 만한 여유가 없었던 것 등과 더불어 이러한 분위기가 작용했던 결과가 아닌가 싶다.

홍콩의 도시적 상업적 환경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홍콩 작가들의 특별한 문학 행위 역시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들의 글쓰기에 대해 정부나 공공 단체로부터의 지원은 거의 없었고,⁶⁾ 상업적 논리에 의한 고료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박했다. 이에 따라 글쓰기 자체로 생활이 가능한 작가의 수도 별로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사 전업작가가 있다 하더라도 거의 중노동에 해당하는 글쓰기를 해야 했다.⁷⁾ 또 수익성을 고려한 출판사들의 기피로 인해 그들의 작품은 문예잡지나 문학서적의 형태로서가 아니라 대부분 일반 신문의 문예면이나 기타 면에 게재되는 형태로 발표되었는데, 그러한 글들은 독자의 호응에 따라 신문 판매 부수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쫓기면서도 독자들의 반응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글쓰기가 강제되었다. 따라서 이처럼 저열한 고료, 신문 지면에서의 작품 발표 등과 같은 여건들과 더불어 인

5) 여기서 '기본적으로'라는 말을 쓴 것은 무제한적인 자유를 인정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1939년 12월 그때 막 고조를 보이기 시작한 '문예의 민족형식' 논쟁이 갑자기 마감하고 만 것은, 그 자신이 제국주의 국가였던 영국의 입장과 나날이 강화되던 일본의 압력 등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자세한 것은 줄고, <香港 지역의 '문예의 민족형식 논쟁'에 대하여>, 《중국어문논총》 제3집, 서울: 고대중국어문연구회, 1990년 12월, 301-340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6) 1980년대 말에야 비로소 홍콩예술발전국이 설치되어 작가들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었으며, 같은 차원에서 신문 잡지의 문예면이 강화되고 각종 문학운동진이 다수 개척되었다.

7) 예컨대 唐人은 "한 동안 나는 매일 1만자 썩 써야 했다. 10년을 계속하면서 하루도 빠진 적이 없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쓰지 않으면 홍콩에서는 생활해 나갈 수가 없다. 다시 말해 짐세도 낼 수 없고 아이들도 학교에 보낼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솔회했다. 傅眞, <香港文苑奇才 -- 唐人>, 《中國現代當代文學研究》, 北京: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中心 1981-24, 111쪽에서 재인용.

구 과밀의 자본주의적 도시라는 홍콩 자체가 가진 열악한 거주조건⁸⁾, 과중한 생활 압력, 긴박한 도시 리듬 등은 작가들의 문학 행위에 심각한 제한을 가했고, 결과적으로 작품의 내용과 수준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 즉, 장기적인 계획 하에 충분한 사색을 거쳐 창작하기는 매우 어려웠고 그 대신 신속하면서도 일반 대중의 즉각적인 반응을 염두에 두는 글쓰기가 요구되었으며, 종종 역사나 정치 문제와 같은 거대담론적인 것보다는 도시적 일상사를 소재로 하면서 패스트푸드 식의 짧은 소일적인 것을 우선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심지어 어떤 작가는 스스로를 ‘원고지 칸을 기어다니는 동물爬格子動物’이라고 비하했을 정도였다.

작가의 이동이 극히 잦고 많다는 점도 중국대륙이나 타이완과는 매우 다른 점이다. 항일전쟁 등의 이유로 작가들의 피난처가 되었던 1930,40년대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작가들이 빈번하게 유출입하는 현상은 끊임이 없었다. 즉, 뒤에서 자세히 살펴 볼 것인 바, 홍콩인으로서 홍콩에서만 활동한 작가들 외에도, 외지인으로서 홍콩에 와서 일시 또는 장기 체재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거주민이 되는 작가도 허다했고, 홍콩인으로서 외지에 다녀오거나 이주하는 작가도 많았으며, 또 수시로 출입을 반복하는 작가 역시 적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점은 항일전쟁기를 제외하고는 작가의 주거지가 대체로 고정된 중국대륙은 물론이고, 상대적으로 보아 작가의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타이완과 비교해 보아도 확연히 구별되는 현상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이러한 작가의 유동성은 당연히 홍콩문학 작품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첫째, 홍콩문학이 그 독자적인 면모를 갖추어나가는 과정에서도 중국대륙이나 타이완과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 일정한 연계성을 유지해 나가도록 만들었다. 이는 중국대륙과 타이완의 문학이 각기 상호 접촉 없이 수 십 년 간 거의 고립적으로 발전해 나갔던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둘째, 서방 세계와의 빈번한 교류를 통해서 서방문

8) 王一桃에 따르면, 소설가 西西는 몸을 움직이기도 겁많은 세면실에서 글을 쓰고, 또 많은 작가들은 시립 도서관이나 기타 공공장소에서 그들의 작품을 쓰며, 어떤 이는 심지어 패스트푸드점에서 그들의 연재소설이나 칼럼잡문을 쓴다고 한다. 王一桃, 〈香港「嚴肅」文學的困境和出路〉, 黃維樑 編, 《中華文學的現在和未來: 兩岸暨港澳文學交流研討會論文集》, (香港: 鑪峯學會, 1994), 212쪽 참고.

학의 영향을 적극 수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점을 잘 증명해주는 것은 1950년대 중반 타이완보다 먼저 모더니즘을 체계적으로 검토, 수용하여 타이완의 모더니즘 성행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⁹⁾ 그러나 중국대륙 문학이 1950년대에서 1970년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외부와의 접촉을 거의 단절했던 것과 비교한다면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셋째, 외지작가의 대량 유입이나 또는 현지작가든 외지작가든 간에 그들의 ‘통과여객’적인 활동으로 인해, 그들의 작품에는 홍콩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중국 또는 세계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나타남과 동시에 무의식적인 ‘이방인’('나그네')적 심리가 유로되었다.

이렇게 보자면 교통성 또는 교류성이야말로 홍콩문학의 특성을 잘 나타내주는 것 중 하나일 것이다. 작품면에서 볼 때 이러한 특성은 무엇보다도 우선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의 착종에서 유난하다. 종적으로 보자면 중국의 신구문학의 영향이 다 존재하고, 횡적으로 보자면 영미문학에서부터 프랑스문학이나 일본문학이라든가 심지어 중남미 문학까지도 영향을 주었다.¹⁰⁾ 예컨대 西西의 작품은, 리얼리즘을 토대로 하면서 환상적 모더니즘 기법까지 혼용하고 있는 한편 사상방식, 윤리도덕 관념, 인생 태도 등의 면에서는 중국 전통 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¹¹⁾ 또 이곳에서는 악성 서구화 현상을 보인다거나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그런 문학 평론가는 존재하지 않으니, 黃維樑, 黃繼持 등의 이론과 평론은 고급의 허물 위에 밝고, 중서의 이론을 융합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¹²⁾ 이러한 점은 1950년대 이후 1970년대 상반기까지, 중국대륙의 경우에는 서구문학의 영향은 물론이고 동구나 소련문학의 영향까지 거의 차단하고 일종의 자력갱생의 방향으로 나아간 것과

9) 馬博良이 1966년에 창간한 《文藝新報》는 체계적으로 실존주의 작품과 논저를 소개했는데, 타이완에서 일어난 모더니즘운동은 그로부터 적잖은 양분을 흡수했다. 古遠清, 〈三岸當代文學理論批評連環比較〉, 黃維樑 編, 《中華文學的現在和未來: 兩岸暨港澳文學交流研討會論文集》, (香港: 鑪峯學會, 1994), 345-364쪽.

10) 黃維樑, 《香港文學初探》, (香港: 華漢文化出版社, 1985), 28쪽; 王一桃, 〈香港「嚴肅」文學的困境和出路〉, 黃維樑 編, 《中華文學的現在和未來: 兩岸暨港澳文學交流研討會論文集》, (香港: 鑪峯學會, 1994), 210쪽.

11) 李子雲, 〈在寂寞中實驗: 論西西的小說創作〉, 《中國現代當代文學研究》, 北京: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中心, 1989-9, 175쪽.

12) 古遠清, 〈三岸當代文學理論批評連環比較〉, 黃維樑 編, 《中華文學的現在和未來: 兩岸暨港澳文學交流研討會論文集》, (香港: 鑪峯學會, 1994), 345-364쪽.

비교해 보아도 그렇지만, 타이완의 경우 나중 비록 향토문학이 대두되기 시작했지만 반공문학의 흐름 한편에서는 서구문학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모더니즘문학이 한때 풍미했던 것과 비교해 보아도, 분명히 다른 두 지역과 구별되는 현상이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어가 아닌 영어로 창작하거나 비평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했을 것이고¹³⁾, 이 점 또한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홍콩문학의 교통성이 잘 나타나는 것 중의 또 한 가지는 중국대륙과 타이완의 양쪽으로부터 영향을 받음과 동시에 그 양쪽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좌우 대립의 간접적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것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다는 것이다. 물론 홍콩이라고 해서 좌우의 대립 양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상대적으로 보아 1950년대 이전에는 국민당 정부에 비판적인 작가, 작품이 꽤 있었다고 한다면, 1950년대에는 공산당 정부에 비판적인 작가, 작품이 많았으며, 그 이후에도 좌우간의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국면에서 볼 때는 이런 현상은 그리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고, 그나마도 1980년대 이후 특히 좌우 인사가 모두 참여한 《星島晚報》의 문학 부간인 《大會堂》 및 문학잡지 《香港文學》의 발간을 표지로 하여 모호해졌다. 또 비단 이런 정치적 측면을 떠나서도 양안과의 교류는 작가들의 출신지에 따라 서로 다른 기풍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면 대체로 보아 1970년대 이래 홍콩출신 작가들의 작품은 그 제재가 대부분 홍콩사회가 위주이면서 기교면에서는 중서의 융합이었다고 한다면, 중국대륙에서 이주해온 작가들의 작품은 향토적인 리얼리즘적인 기풍을 보여주었고, 타이완 출신의 작가들은 뿌터부르조아적 관념이 많이 나타나는 등 서구문학의 영향이 뚜렷하였다.¹⁴⁾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대륙이 胡適, 周作人, 林語堂, 梁實秋, 張愛玲 등 다수 작가들을 냉대하고, 타이완이 魯迅, 郭沫若, 茅盾, 巴金, 老舍 등 수많은 작가들을 아예 금기시했던 것과 비교해 본다면, 이런 점들은 두 말할 나위도 없이 홍콩문학의 특수성을 잘 보여준 것이라

13) 예컨대 1924년 홍콩으로 이주해 온 한 부호 가정을 소재로 한 Mimi Chan, *All The King's Women*,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2000과 같은 작품을 이 범주에 넣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좀더 확장하자면 Jardine Matheson & Co.(怡和洋行)의 역사를 소재로 한 James Clavell, *Taipan*, London: Michael Joseph & Co., 1966와 같은 작품도 가능할 것이다.

14) 陳炳良 編, 《香港當代文學探研》, (香港: 三聯書店, 1992), 3쪽.

고 할 수 있다.

국제적 금융, 무역의 중심지이자 아시아 최대의 자유항인 홍콩에는 그 상업적 도시적 성격으로 인해 치열한 상업적 경쟁, 잔혹한 시장 상황, 흥협한 세상사, 변화무상한 유행 등이 뒤얽혀 있다. 이에 따라 작가들은 종종 극단적인 내용과 표현으로 대중의 관심을 끌고자했으며, 홍콩문학에는 극단적이고도 기이한 현상이 자주 출현하고 일과성의 선풍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다.¹⁵⁾ 이러한 홍콩문학의 도시성이 분명히 드러난 것은 홍콩의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197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단초는 1920년대에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 《伴侶》 제1기의 <賜見>에 문학은 “자동차의 바퀴가 꽃이 되고 상점의 간판이 잎이 되고”라고 표현했는가 하면¹⁶⁾, 《伴侶》 제5기는 ‘첫키스’ 특집호로 꾸며졌는데, 鳳妮는 <初吻之分析>에서 이들 12편의 작품에 대해 ‘대체로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근대적 도시적 색채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평하기도 했던 것이다.¹⁷⁾ 이처럼 상업성과 결부된 홍콩문학의 도시성은 1950년대 이후 근년에 이르기까지 중국대륙문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현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더 확대해서 볼 때 농경사회 하에 가족 혈연 관계를 토대로 성립된 중국 전통 문화의 관념과 대비되는 전혀 새로운 현상이었다.

홍콩문학의 상업성과 도시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현상은, 양적인 측면에서 통속문학이 엄숙문학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곳에서는 金庸, 梁羽生 등의 무협소설, 亦舒, 林燕妮, 嚴沁, 岑凱倫 등의 애정소설, 倪匡 등의 SF소설이 완전히 일반 문예물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엄숙문학은 주로 학원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현상이 그 전의 중국대륙에서는 보기 드물었지만 그래도 타이완에서는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른바 칼럼잡문의 성행은 그야 말로 중국대륙이든 타이완이든 홍콩문학에서만 특유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15) 花建, <東方之珠的文化神韻: 論香港文學發展的三個特點>, 《中國現代當代文學研究》, 北京: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中心 1997-7, 223쪽.

16) 張北鴻, <香港文學概論>, 《中國現代當代文學研究》, 北京: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中心 1992-7, 251쪽.

17) 袁良駿, 《香港小說史》, (深圳: 海天出版社, 1999), 47쪽.

홍콩신문의 문예면 판짜기는 독특하다. 전체 판이 고정되어 있는데, 테두리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수많은 규칙적인 또는 불규칙적인 칸을 만들어 놓고, 그 각각의 일정한 칸에 지정된 작가가 매일 수백 자에서 천 수백 자의 글을 고정적으로 발표하는 것이다. 즉 전체적으로 보면 수많은 작가가 마치 군웅이 할거하듯이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글을 발표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소위 칼럼잡문(‘專欄雜文’, ‘框框雜文’, ‘框框文學’, ‘塊塊框框文學’)이다. 이러한 칼럼잡문은 1930,40년대부터 이미 생겨나기 시작해서 당시 ‘신문꽂다리報屁股’라고 불리기도 했으며, 1970·80년대에 이르면 이미 신문 판매 부수에 영향을 줄 정도로 활성화되었다.¹⁸⁾ 이런 칼럼잡문은 길이가 짧고 문장이 매끄러우면서 다루는 문제가 광범위한 데다가 사회적 상황과 광범위하고도 일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바로 이런 성격 탓에 다른 한편으로는 ‘패스트푸드문학快餐文學’, ‘인스턴트문학即棄文學’이라고 평가되기도 하고¹⁹⁾ 심지어는 문학작품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²⁰⁾ 그러나 이런 칼럼잡문은 집필자 상당수가 저명작가일 뿐만 아니라 뛰어난 작품 역시 적잖이 발견된다. 따라서 이를 문학현상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한 견해이며, 이와 동시에 중국대륙이나 타이완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홍콩문학 특유의 현상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18) 王敏, <百年變遷中的香港文學>, 《中國現代當代文學研究》, 北京: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中心 1997-11, 228쪽. 黃維標에 따르면, 1982년 2월 22일 홍콩지역 55개의 신문 중 13개 신문을 조사한 결과 약 400개의 고정난이 있었으며, 그 중 약 90개는 소설연재였고 나머지 약 310개는 각양각색의 칼럼잡문이었다고 한다. 黃維標, 《香港文學初探》, (香港: 華漢文化出版社, 1985), 2-3 및 30-31쪽.

19) 吳躍農, <臺灣海外十年散文印象>, 《中國現代當代文學研究》, 北京: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中心 1989-6, 176쪽.

20) 陳炳良 編, 《香港當代文學探研》, (香港: 三聯書店, 1992), 1-4쪽.

3. 홍콩문학의 범주

홍콩문학이라면 단순히 ‘홍콩에 거주하는 중국인 작가가 중국어로 쓴 문학’²¹⁾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우선 작가적 측면에서 볼 때 홍콩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작가의 유동성이 심대하기 때문이다. 몇몇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吉林省에서 태어난 李輝英은 1930년대에 만주 지역 중국인의 항일투쟁을 묘사한 《萬寶山》, 《松花江上》 등의 소설을 발표하여 중국현대문학사에서 일반적으로 동북작가의 한 사람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그는 1950년에 홍콩으로 이주하여 이후 사망할 때까지, 인생의 후반을 홍콩에서 보내면서 《牽狗的太太》를 비롯하여 홍콩의 도시적 풍모와 홍콩인의 삶을 묘사한 소설, 수필 등 약 30여 종의 작품집을 출판했다. 또 南京에서 출생한 余光中은 1950년 타이완으로 이주한 후 시집 《舟子的悲歌》 등 20여종의 작품집을 출판함으로써 타이완 문단의 저명 시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그는 1974년 홍콩에 와서 다시 타이완으로 돌아갈 때까지 약 11년 간 거주하면서 《與永恒拔河》 등 3권의 시집을 출판하는 등 많은 작품을 창작했으며, 그 스스로도 “‘홍콩시기’의 창작 성과는 시, 산문, 번역, 비평 각 방면에서 모두 내게 대단히 중요하다”²²⁾라고 말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홍콩에서 성장한 張錯과 葉維廉은 타이완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산문집과 시집을 출판하는 한편 당시 타이완의 현대시운동에 참여했으며, 나중에 미국에 거주하면서도 계속해서 타이완에 작품을 발표하였다. 劉紹銘 역시 홍콩 출생이지만 그가 문학평론 활동을 시작한 것은 타이완대학 재학 중이었다. 그는 청년시절 홍콩에서 작품을 발표하기도 했으나 주요 무대는 인디어나 대학에서 박

21) 黃維樑, <香港文學與中國現代文學的關係>, 第三屆全國臺灣與海外華文文學學術討論會大會學術組選編, 《臺灣香港與海外華文文學論文選》, (福州: 海峽文藝出版社, 1988), 185쪽.

22) 余光中, <自序>, 《春來半島 -- 香港十年詩文選》, (香港: 香江出版社, 1985). 黃維樑, <香港文學與中國現代文學的關係>, 第三屆全國臺灣與海外華文文學學術討論會大會學術組選編, 《臺灣香港與海外華文文學論文選》, (福州: 海峽文藝出版社, 1988), 190쪽에서 재인용.

사 과정을 이수하고 위스콘신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던 미국이었으며, 지금은 다시 홍콩영남대학 교수로서 홍콩에 돌아와 활동 중이다. 마찬가지로 홍콩에서 태어나 성장한 鄭樹森은 타이완 정치대학에서 대학을 마치고 미국 UC San Diego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로 있으면서 그 사이 홍콩대학, 홍콩중문대학 등에서 교수를 역임하고 홍콩과기대 교수를 겸직했다. 이와 같은 그의 이력에서 보듯이 그는 홍콩 출입이 무척 빈번하였는데, 그의 문학 활동 또한 이와 같은 이력에 조응하는 것이었다. 또 홍콩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羈瑰과 같은 작가는 1994년에 아예 호주로 이민을 갔지만 결국은 도로 돌아와 있다. 그렇다면 이들 각각은 과연 홍콩작가인가 아닌가?

이와 같은 작가의 유동성 문제와는 별도로 작가의 발표 지면 문제 역시 단순하지 않다. 上海에서 태어난 西西는 1950년대에 홍콩으로 이주하여 이후 홍콩에서 성장, 거주하면서 주로 홍콩을 소재로 하여 대표작 《我城》을 비롯해 거의 모든 장르에 걸쳐 수많은 작품을 창작했고, 이에 따라 그녀는 출생지에 관계없이 홍콩을 대표하는 작가 중의 한 사람으로 꼽힌다. 그런데 그녀의 신작은 종종 홍콩이 아닌 타이완에서 발표되었으며, 심지어 홍콩이 아닌 타이완에서 그녀의 전작이 출판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와 유사한 현상이 비단 西西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상당히 보편적이라는 사실이다. 예컨대 也斯의 첫 번째 수필집과 소설집 및 번역서는 모두 홍콩에서 탈고했지만 타이완에서 출간되었고, 鍾鳴揚의 작품집은 처음 홍콩에서 출간되었으나 타이완에서 먼저 유행한 후 다시 홍콩에서도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그 외에도 梁錫華, 黃維樑 등 많은 작가, 평론가의 글들이 왕왕 타이완에서 발표되고 있다. 더군다나 이는 최근의 현상만도 아니다. 1920년대에도 謝晨光과 같은 작가는 上海의 문예지에 작품을 발표하고 上海에서 그의 작품집을 출판했던 것이다.²³⁾

그렇다면 과연 상황이 어느 정도로 복잡한가? 작가들의 발표 지면 문제는 일단 제외하고 거주지 개념에서 출생지, 성장지, 등단지, 거주지만 두고 보면 대략 다음

23) 문학단체 島上社의 핵심인물이었던 謝晨光은, 1927년 봄에만 단편소설 <劇場裏>와 <加藤洋食店>, 평론 <談談陶晶孫和李金髮>, 산문 <最後的一幕> 등의 작품을 上海의 《幻洲》, 《戈壁》, 《一般》 등에 발표했으며, 1929년에는 上海現代書局에서 단편소설집 《勝利的悲哀》를 출판했다. 袁良駿, 《香港小說史》, (深圳: 海天出版社, 1999), 40-41쪽 참고.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홍콩작가 출생지, 성장지, 등단지, 거주지²⁴⁾

- 1) 홍콩 출생, 홍콩 성장, 홍콩 등단, 영구 거주: 昆南, 金依, 潘銘燊, 舒巷城, 小思, 秀實, 辛其氏, 梁鳳儀, 侶倫, 王良和, 鄭鏡明, 鍾偉民, 陳寶珍, 陳昌敏, 黃繼持, 黃國彬, 黃碧雲 등
- 2) 홍콩 출생, 홍콩 성장, 홍콩 등단, 반복 거주: 羈魂, 余思牧 등
- 3) 홍콩 출생, 홍콩 성장, 외지 등단, 영구 거주: 劉紹銘, 夏易 등
- 4) 홍콩 출생, 홍콩 성장, 외지 등단, 단기 거주: 黃秋耘 등
- 5) 홍콩 출생, 외지 성장, 외지 등단, 영구 거주: 王璞 등
- 6) 홍콩 출생, 외지 성장, 외지 등단, 단기 거주: 秦牧 등
- 7) 외지 출생, 홍콩 성장, 홍콩 등단, 영구 거주: 譚秀牧, 西西, 彥火, 嚴吳嬋霞, 陸離, 依達, 李維陵, 張軍默, 陳德錦, 蔡炎培, 何紫, 胡燕青, 黃慶雲, 黃維梁, 黃天石 등
- 8) 외지 출생, 홍콩 성장, 홍콩 등단, 장기 거주: 阿濃, 鍾曉陽, 陳浩泉, 胡菊人 등
- 9) 외지 출생, 홍콩 성장, 외지 등단, 영구 거주: 也斯 등
- 10) 외지 출생, 홍콩 성장, 외지 등단, 단기 거주: 陳殘雲 등
- 11) 외지 출생, 홍콩 성장, 외지 등단, 반복 거주: 葉維廉, 張錯 등
- 12) 외지 출생, 외지 성장, 홍콩 등단, 영구 거주: 金庸, 關心, 藍海文, 戴天, 陶然, 夢如, 舒非, 楊明顯, 梁羽生, 嚴沁, 周蜜蜜, 陳娟, 夏婕 등
- 13) 외지 출생, 외지 성장, 홍콩 등단, 장기 거주: 偉斯理(倪匡) 등
- 14) 외지 출생, 외지 성장, 홍콩 등단, 반복 거주: 黃谷柳 등
- 15) 외지 출생, 외지 성장, 외지 등단, 영구 거주: 古劍, 高旅, 金耀基, 金兆, 大華烈士, 傅天虹, 徐速, 徐訐, 葉靈鳳, 力匡, 吳其敏, 溫瑞安, 王一兆, 劉以鬯, 犁青, 李輝英, 林以亮, 張文達, 張詩劍, 蔣芸, 丁嘉樹, 丁平, 曹聚仁, 鍾玲, 曾敏之, 肖銅, 忠揚, 何達, 許地山, 黃河浪, 曉帆 등
- 16) 외지 출생, 외지 성장, 외지 등단, 장기 거주: 戴望舒, 梁錫華, 余光中, 原甸, 李育中, 陳之藩, 黃藥眠 등
- 17) 외지 출생, 외지 성장, 외지 등단, 단기 거주: 葛琴, 郭沫若, 歐陽山, 歐陽予倩, 鷗外鷗, 蘆荻, 樓適夷, 端木蕻良, 唐弢, 杜埃, 孟超, 穆時英, 范長江, 司馬文森, 徐中玉, 徐遲, 聶紺弩, 邵荃麟, 蕭紅, 施蛰存, 陽翰笙, 力揚, 葉聖陶, 吳祖光, 郁達夫, 柳亞

24) 성장지는 중등학교 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거주지는 출생지 및 성장지와 관계없이 등단 이후의 거주지만 고려. 영구 거주는 이주 5년이 지나고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홍콩에서 사망한 경우, 장기 거주는 5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단기 거주는 5년 미만 거주한 경우, 반복 거주는 총거주 기간 5년 이상인 작가 중에서 출입을 반복한 경우.

- 子, 李立明, 林默涵, 臧克家, 鄭振鐸, 鍾敬文, 周錫鳴, 周而復, 秦似, 陳若曦, 蔡楚生, 鄒韜奮, 鄒荻帆, 巴金, 馮乃超, 夏衍, 韓北屏, 胡風 등
- 18) 외지 출생, 외지 성장, 외지 등단, 반복 거주: 茅盾, 顏純鈞, 廖沫沙, 韓牧 등

홍콩작가와 관련된 이러한 복잡한 사정은 자연히 ‘홍콩작가’의 범주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면 劉紹銘에 대해서는 그가 최근 홍콩으로 돌아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은 홍콩작가로 보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홍콩작가로 간주하지 않았다.²⁵⁾ 심지어 余光中의 경우에는 그를 홍콩작가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로 논쟁이 일어나기도 했다.²⁶⁾ 이 때문에 아예 花建과 같은 연구자는 문학작품을 출판했거나 문예칼럼을 주관한 바 있는 사람 중에서도 1997년 이전 당시 홍콩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연한이었던 7년 이상 거주자만을 따로 분류하기도 했다.²⁷⁾ 그러나 이런 식의 일률적인 기준은 그리 적절하지가 않다. 만일 花建의 기준에 따르자면 항일전쟁기에 香港에서 활동했던 茅盾, 蕭紅, 端木蕻良, 戴望舒 등 수많은 작가들과 그들의 문학 작품 및 행위가 홍콩문학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직된 관점보다는 좀더 유연한 관점이 필요한 데, 홍콩문학의 외연을 최대한 늘리고자 시도하는 黃維樑의 견해가 대표적이다. 黃維樑은 체재 기간의 장단 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작가가 홍콩의 사회 문화에 공헌했다면 그 자체로도 홍콩의 영광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작가의 범주에 대해서는 ‘다다익선’이라는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²⁸⁾ 다만 이 역시 문제가 없지는 않다. 그의 말대로라면, 홍콩 출신이지만 주로 외지에서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들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는 말 그대로 외지인이면서 수 차례 홍콩에 작품을 발표한 작가들마저도 모두 홍콩작가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25) 전자로는 黃維樑이 대표적이고, 후자로는 古遠清이 대표적이다. 각각 黃維樑, 《香港文學初探》, (香港: 華漢文化出版社, 1985), 16-18쪽과 古遠清, 〈三岸當代文學理論批評連環比較〉, 黃維樑編, 《中華文學的現在和未來: 兩岸暨港澳文學交流研討會論文集》, (香港: 鑪峯學會, 1994), 345-364쪽 참고.

26) 古遠清, 〈香港文學五十年〉, 《中國現代當代文學研究》, 北京: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中心 1997-6, 256쪽.

27) 그에 따르면 192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이 조건에 맞는 ‘홍콩작가’는 모두 360여 명이라고 한다. 花建, 〈東方之珠的文化神韻: 論香港文學發展的三個特點〉, 《中國現代當代文學研究》, 北京: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中心 1997-7, 222쪽.

28) 黃維樑, 《香港文學初探》, (香港: 華漢文化出版社, 1985), 16-18쪽.

이런 점들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출신지나 거주지에 따른 작가의 신분 그 자체보다도 작가의 거주와 활동이 실질적으로 일정 기간 홍콩 지역 문학 현상의 일부를 구성하고 영향을 주었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논쟁까지 벌어졌던 余光中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홍콩시기의 창작이 그 이전 시기 창작의 연속 선상에 있는 것이었고, 홍콩을 소재 또는 주제로 한 작품의 수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자신도 인정할 만큼 이 시기의 작품이 그의 창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또 직접 홍콩의 시창작 운동 및 각종 문학활동에 참여하는 한편 창작, 평론, 강의 등의 방식으로 젊은 후배 시인들에게 다각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홍콩의 시 창작 수준을 제고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기간 만큼은 홍콩작가로서 활동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홍콩에 거주하면서 홍콩에서 작품을 발표한 사람 중에서, 그 활동이 실질적으로 일정 기간 홍콩 지역 문학 현상의 일부를 구성하고 영향을 준 작가를 홍콩작가로 하고, 만일 필요하다면 그 중에서도 생애를 통해 주요 활동지가 홍콩인 작가를 특별히 협의의 홍콩작가로 하면 될 것으로 본다. 또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작품의 발표지가 홍콩일 가능성이 많으며, 혹시 발표지가 타지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홍콩문단에 영향을 준 경우에 한정하므로, 발표지 문제도 크게 난점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홍콩작가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크다. 이에 따라 1981년 초 黃維梁이 <香港作家的定義>를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한 이래, 1985년 5월 전후 이에 관한 논의가 하나의 정점을 이루기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단속적으로 각자의 견해를 다양하게 제시해왔지만²⁹⁾ 지금까지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홍콩작가의 개념이 가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따지고 보면 그것이 중국적으로는 홍콩문학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 주목하여 어떤 사람들은 홍콩문학의 범주 문제와 관련하여 작품 자체가 홍콩문학으로서 모종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를 언급하기도 한다. 예컨대 王一桃는 현대 홍콩문학은 홍콩작가가 중국어로 형상을 창조하

29) 盧璋鑾, <香港文學研究的幾個問題>, 黃繼持 盧璋鑾 鄭樹森, 《追跡香港文學》, (香港: 牛津大學出版社, 1998), 59쪽.

면서 홍콩사회의 상황과 홍콩 거주민의 심리를 표현한 강렬한 홍콩의식을 가진 문학예술이라고 규정한다.³⁰⁾ 또 王劍叢은 협의에서 보자면 홍콩작가가 홍콩의 사회 생활과 시민 심리를 반영하여 홍콩의 지면에 발표한 작품이, 광의에서 보자면 발표지나 제재 따위에 상관없이 홍콩작가가 쓴 홍콩의식과 홍콩특색을 가진 작품이 홍콩문학이라고 말한다.³¹⁾ 즉 이들에 따르면 어떤 작품이 홍콩인의 삶과 의식을 표현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홍콩문학의 범주에 한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물론 어떤 지역의 문학이 다른 지역의 문학과 구별되기 위해서는 그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좀 간단히 말하자면, 작품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생활 방식에서부터 사회 심리상태 및 가치 경향에 이르기까지 그 지방의 색채와 경험을 드러내고 있어야 하고,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그러한 색채와 경험을 표현하는 독자적인 수법이나 문학 형태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상기한 주장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좀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이러하다. 우선 여기서 말하는 ‘홍콩 의식’이나 ‘홍콩 특색’ 등의 개념이 그 자체로도 논란의 여지가 큰 것인 데다가, 실령 그와 같은 ‘홍콩성’을 앞서 말한 정도에 한정하더라도 그러한 것이 어느 시기의 어느 작품에서 드러나는가를 따져보는 것도 쉽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그러한 제한은 결과적으로 실제 홍콩에서 일어났던 문학 행위의 상당부분을 제외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1920·30년대 홍콩 작가들의 작품에는 이른바 ‘홍콩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³²⁾ 과연 그런 작품들을 홍콩문학에서 배제할 수 있겠는가?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같은 작가의 어떤 작품은 제외되고 또 다른 어떤 작품은 포함되고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다른 한편으로 蕭紅의 <呼蘭河傳>와 같은 작품들은 비록 홍콩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중국대륙의 경험을 내용으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홍콩

30) 王一桃 <香港嚴肅文學的困境和出路>, 黃維樑 編, 《中華文學的現在和未來: 兩岸暨港澳文學交流研討會論文集》, (香港: 鑪峯學會, 1994), 210쪽.

31) 王劍叢, 《香港文學史》, (南昌: 百花洲文藝出版社, 1995), 4-5쪽.

32) 일반적으로 홍콩문학에서 ‘홍콩성’이 비교적 선명하게 형성된 것은 1950년대 이후라고 보며, 그 이전에는 黃谷柳의 <蝦球傳>이나 侶倫의 <窮巷>과 같은 소수의 작품에서만 ‘홍콩성’이 나타난다고 평가된다.

문학에서 완전히 제외할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이와 유사한 수많은 작품들이 홍콩문학에서 제외될 것이고, 따라서 단순히 홍콩문학의 풍부성에 손상을 입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기 홍콩의 문학 현상을 적절히 설명할 수가 없게 되지 않겠는가?

홍콩문학이란 중국대륙문학 및 타이완문학 등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일 뿐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 중국문학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런 점에서 중국대륙문학 및 타이완문학과 일정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보아 ‘홍콩성’을 잘 보여주는 작품들을 홍콩문학에서 중시하되 ‘홍콩성’이 선명하지 않거나 드러나지 않는 작품들 역시 다른 조건들에 부합한다면 모두 홍콩문학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홍콩에 존재하는(존재했던) 문학과 홍콩에 속하는(속했던) 문학을 구분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후자만이 홍콩문학이라고 정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외에도 홍콩문학의 범주 문제에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있다. 전술한 것처럼 홍콩의 특수한 사회 조건 탓에 언어적인 면에서 볼 때 중국어로 된 작품 외에도 영어 또는 기타 언어로 된 작품이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최대한 넓게 생각해보자면 어떤 언어로 창작된 작품이든 간에 모두 홍콩문학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중국어가 아닌 언어로 된 작품은 이 지역 문학의 주류도 아니요 또 그것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는 데다가, 현재 중국 문학이라면 일반적으로 중국어로 된 문학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일단 중국어로 된 작품만을 홍콩문학에 포함하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중국어로 된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문언인가 아니면 백화인가 또는 표준어인가 아니면 사투리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에 관해서는 각도를 조금 달리 하여 사용 언어 그 자체만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 이른바 ‘표현이 철저하고 격식이 특별한’³³⁾ 신문학인가 아닌가라는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33) 魯迅은 “여기에[《新青年》에] 창작 단편소설을 발표한 사람은 魯迅이다. 1918년 5월부터 시작해서 <狂人日記>·<孔乙己>·<藥> 등이 잇달아 출현했는데, ‘문학혁명’의 성과를 나타내 준 셈이다. 또 당시 ‘표현이 철저하고 격식이 특별하다’고 여겨져 일부청년 독자의 마음을 상당히 격동시켰다”라고 말한 바 있다. 魯迅 選編, <中國新文學大系 小說二集 導言>, 《中國新文學大系 小說二集》, (影印本, 上海: 上海出版社, 1980), 1쪽.

고 본다. 그것은 다음 이유 때문이다.

아편전쟁 전후의 홍콩은 조그마한 어촌에 불과했고 그 이후 점차 인구가 증가하면서 문학활동 역시 늘어나기는 했다. 그러나 19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홍콩의 문언문학은 약간의 지역적 특색이 드러나기는 했지만 그것은 아직 이른바 ‘嶺南文學’의 차원에 속하는 것일 뿐 홍콩문학으로 따로 일컬을 만큼 독자적인 모습을 갖추지는 못했다. 이는 20세기 상반기에도 마찬가지였다. 비록 홍콩의 문언문학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현대’적인 의식을 결여한 상태로 현대사회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다른 지역과 대별될 수 있는 그런 역량 내지 조짐을 보여주지는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1920년대에 나타나기 시작한 신문학은³⁴⁾ 시간이 흐를수록 그 독자적인 면모가 강화되었고 결국 중국대륙문학 및 타이완문학과 병칭될 정도로 성장하게 된다. 그러므로 전반적으로 보아 구문학 시기의 문학 내지는 문언 문학은 비록 홍콩적인 특성이 제법 드러나기는 하지만 그것이 중국대륙문학 및 타이완문학과 상대적인 정도도 아닌 데다가 특히 ‘현대’적인 의식을 결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는 홍콩문학에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홍콩문학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처럼 신문학인가 아닌가라는 기준에서 보자면 그 언어가 표준어인가 사투리인가 하는 것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國語와 普通話는 각기 1918년과 1955년에 제정되어 일정한 보급 기간이 필요하기도 했거니와 이와 동시에 각 지역 각 시기의 문학 작품이 그러한 공통 언어를 형성, 발전시켜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점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오직 표준어로 된 작품만으로 한정한다는 것은 차질 동시대 문학의 다양성과 풍부성을 저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설사 사투리를 사용한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정도 규범어를 의식하고 있는 데다가 표의문자인 한자의 특성상 작품의 본질적인 면을 저해할 정도는 아닌 것으

34) 일반적으로 홍콩 신문학의 탄생은 홍콩의 첫 번째 신문학 잡지인 《伴侶》가 창간된 1928년 전후라고 간주된다. 그러나 홍콩 신문학의 기점은 자료의 발굴에 따라서는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袁良駿은 그의 《香港小說史》, (深圳: 海天出版社, 1999), 35-41 쪽에서 英華書院 기독교청년회가 주관하던 《英華青年》이 재창간된 1924년이 그 기점이라고 논증한다.

로 보인다. 따라서, 되풀이해서 말하자면, 작품의 사용 언어가 문언인가 아니면 백화인가 또는 표준어인가 아니면 사투리인가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는 의미 있는 기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그보다는 각도를 좀 달리 해서 작품이 신문학에 속하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상대적으로 보아 특별히 주목받는 문제는 아니지만, 중국문학을 다룰 때 엄숙문학(본격문학) 만을 그 범주에 넣는 경우가 없지 않은데, 엄숙문학과 통속문학을 구분하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도 있다. 일반적으로 통속문학은 이야기나 주제 자체만을 중시하고 엄숙문학은 그 외에도 비유, 상징, 운율, 세부 묘사, 서사 관점의 운용 등에도 주목한다는 점에서 양자의 차이가 있다. 또 작품의 내용적 측면에서도 그 추구하는 수준이 대체로 구별된다.³⁵⁾ 그러나 평가 관점에 따라서는 동일한 작품이 서로 다른 부류로 분류될 수도 있을 만큼 이러한 통속문학과 엄숙문학의 구분은 절대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양태를 보자면 이 양자를 구분하는 것은 그다지 의미 있는 일도 아니다. 더구나 홍콩문학의 독자성을 잘 드러내주는 현상 중의 하나가 중국대륙이나 타이완에서는 볼 수 없는 이른바 칼럼잡문을 비롯한 무협소설, 애정소설, SF소설 등 통속문학의 성행이다. 그런 면에서 이미 黃維梁이 “통속문학이든 엄숙문학이든 모두 홍콩문학이다. 칼럼잡문의 신속하고 재치 있는 필치, 무협, SF, 애정소설의 기묘하고 환상적인 필치 및 이들 외의 다양하고 고아한 필치 …… 그밖에 아동문학, 유행가 가사, 영상 대본, 상성 각본, 문학적 색채를 가진 사설과 정론, 심지어 뛰어난 광고 역시 모두 홍콩문학 속에 넣어야 한다.”³⁶⁾라고 한 말은 참고할 만하다. 다만 필자가 보기에는 그 중 ‘문학적 색채를 가진 사설과 정론, 심지어 뛰어난 광고’까지 포함하는 것은 다소 지나친 듯하다.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홍콩문학에 대한 아주 단순 명쾌한 정의를 내리는 쉽지 않다. 여러 번 되풀이해서 말한 것처럼 홍콩문학을 보는 시각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문학에 관한 통상적인 범주를 설명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유용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홍콩에

35) 黃維樑, 《香港文學初探》, (香港: 華漢文化出版社, 1985), 15쪽.

36) 黃維樑, 《香港文學初探》, (香港: 華漢文化出版社, 1985), 25쪽.

거주한 작가의 작품 중에서 그의 작품과 활동이 실질적으로 일정 기간 홍콩 지역 문학 현상의 일부를 구성하고 영향력을 가진 것은 모두 홍콩문학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때 그런 작품이 부분적으로는 외지에서 출판됐다거나, 작가가 일시적으로 외지에 체류 내지 거주했다거나 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작품의 측면에서는 엄숙문학과 통속문학의 구분은 불필요하다고 보며, 작품이 홍콩인의 삶과 의식을 표출하는 것이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무관하다고 본다. 다만 중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쓰인 작품이라든가 구문학 또는 문인문학에 속하는 작품은, 홍콩문학이 중국문학이라는 큰 전제하에 중국대륙 및 타이완의 문학과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통상적인 범주에서는 배제해도 무방할 것이다.

4. 맺음말

지금까지 홍콩문학에 대해 과연 중국문학 내에서 중국대륙문학, 타이완문학과 병립하여 그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있다면 그 범주는 어떻게 확정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홍콩문학의 독자성을 확인하기 위해 중국대륙문학이나 타이완문학과 구별되는 점들을 대거 언급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는 홍콩문학이 중국대륙 및 타이완의 문학과 아무런 친연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며, 중국문학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홍콩 지역이 비록 정치 사회적으로 1세기 이상 중국대륙 및 타이완과 분리 상태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문화와 완전히 단절되어 전적으로 새로운 문화를 탄생시킨 것은 아니듯이 문학 분야 역시 기본적으로 그 동질성을 상실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간략하나마 이는 다음 몇 가지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³⁷⁾ 첫째, 홍콩의 많은 작가들은 문학혁명 이래의 중국 신문학 또는 그 작가들에게서 배우고 영향을 받았다. 둘째, 상당수 중국대륙, 타이완 출신의 작가들이 홍콩에서 일시 또는 장기간 거주

37) 黃維樑, <香港文學與中國現代文學的關係>, 第三屆全國臺灣與海外華文文學學術討論會大會學術組選編, 《臺灣香港與海外華文文學論文選》, (福州: 海峽文藝出版社, 1988), 185-199쪽.

하면서 작품 활동을 했다. 셋째, 홍콩문학은 많은 부분에서 중국 현대의 정치 상황과 사회 상황을 반영 혹은 표현하고 있다. 결국, 다시 한번 되풀이하자면, 홍콩문학은 중국문학 내에 속하면서도 중국대륙문학, 타이완문학과는 병립하는 그런 존재인 것이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지금부터다. 홍콩문학이 과연 그만의 독자성을 계속 유지, 발전해나갈 수 있느냐 아니면 중국대륙의 한 지역문학으로 변모하고 말 것이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1997년 홍콩의 중국반환이 가져오는 홍콩 사회의 변화에 따라 홍콩문학이 장차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국대륙쪽의 연구자나 작가들은 대체로 홍콩문학은 자신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더욱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말한다. “1997년 이후 홍콩은 여전히 자본주의 제도를 유지할 것이고 대륙의 정치제도와 다를 것이다. 문학 형식 역시 다를 것인바, 이곳의 문학은 여전히 다원 발전의 특색을 유지할 것이다.”³⁸⁾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과는 달리 홍콩쪽의 연구자나 작가들은 “우리 눈앞의 모든 것은 여전히 모호하며, 우리는 이 짙은 안개가 걷히기를 기대하고 있을 뿐이다”³⁹⁾라고 말하는 등 대체로 비관적인 분위기를 드러낸다. 사실 이런 우려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1997년 직전 일부 매체들이 이미 ‘자율’을 시작하고, 칼럼작가의 투고를 요청할 때 그 정치적 경향을 중시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우경작가의 칼럼을 삭제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일부 문학 간행물은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에두르거나 설령 게재한다 하더라도 민감한 글귀들을 처리해버리는 수가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⁴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 필자는 상당 기간 홍콩문학이 결정적인 변화를 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홍콩의 중국반환으로 인해 홍콩의 사회 시스템이 단시일 내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 마찬가지로 문학 역시 짧은 시간 내에

38) 古遠清, <香港文學五十年>, 《中國現代當代文學研究》, 北京: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中心, 1997-6, 256쪽.

39) 高蒼梧, <歌者何以無歌 -- 也談香港文學的出路>, 《新晚報》, 1980.11.11. 盧璋鑾, <香港文學研究的幾個問題>, 黃繼持 盧璋鑾 鄭樹森, 《追跡香港文學》, (香港: 牛津大學出版社, 1998), 61쪽에서 재인용.

40) 古遠清, <’96-’97年的香港文學批評>, 《中國現代當代文學研究》, 北京: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中心, 1999-1, 221-224쪽.

근본적인 변화가 생길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사회주의 중국의 주권이 강조되면서 그에 따라 사상과 언론의 자유가 중국 중국대륙의 방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결국 문학의 자유로운 상상과 출판에도 상응하는 영향을 줄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중국대륙과 동일한 상황으로까지 진전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일정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두어 가지만 언급해 보겠다. 현재적 삶에만 집중하던 홍콩인들이 중국대륙과의 새로운 관계를 통해 점차 자아와 역사 등에 대한 통찰에도 주목하게 됨으로써 중국적 문화전통 계승 부분은 이전보다 좀더 적극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普通話 교육이 강화되는 것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영어 수준이 저하되는 현상에서 보듯이, 중국대륙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에 수반하여 서방 세계의 추이에 대한 관심이나 접촉이 다소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서방문학에 대한 수용 역시 약간은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역외 이민의 급증, 좌우 이념 대립의 완화, 화교 간의 경제 협력 강화, 중국의 국제 신장에 의한 중국인으로서의 자부심 고양, 통신 교통 수단의 비약적 발달 등등의 요소로 인해서 중국인 네트워크의 한 중심점으로서 홍콩의 역할이 더욱더 증대될 것이고, 이와 더불어 중국문학 내에서 홍콩문학의 지위 역시 더욱 제고될 가능성이 크다.⁴¹⁾ 특히 홍콩문학이 만일 중국 대륙의 거대한 독자층의 호응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영향력은 더욱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홍콩문학이 과연 어떤 특징적 문학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 그것이 네트워크적인 개념으로서 중국의 문학 내에서 어떤 위치와 역할을 점할 것인가와 같은 과제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검토가 요청된다. 그것은 단순히 홍콩 내지 중국에게만 국한되는 사안이 아니라 우리의 각종 현안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남북한 통일 또는 교류리든가 해외 한인들과의 인적 문화적 네트워크 구축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에게, 홍콩의 중국 반환과 교차지로서의 역할 제

41) 이 점에 있어서는 이미 홍콩은 그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예컨대 중국대륙 정부에 비판적인 高行健의 작품이라든가 중국대륙의 통상적인 관점과는 다소 배치되는 洪子誠의 《中國當代文學史概說》, (香港: 青文書屋, 1997) 처럼 중국대륙 내에서는 출판되기가 곤란한 글들이 자유롭게 발표된다든가, 또는 해외에 산재한 화교들이 지면의 제약 등으로 인해 자신들의 공동체내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작품이 수시로 발표된다든가 하는 그런 일종의 자유 공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고 등이 불러일으키는 홍콩의 새로운 지위와 변화는 일종의 유효한 참조 체계가 될 것이다. 같은 차원에서 홍콩문학 역시 우리 문학의 정체성에 대한 추구, 북한문학 및 해외교포 문학에 대한 방침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것이다.

<Abstract>

Because Hong Kong is in the position of bringing together of Eastern and Western cultures, ideas from the left wing and the right wing, political control and freedom of the press, culture and commercialism, Hong Kong literature has come to have a distinct character from that of other regions. First, Hong Kong literature is distinguished from mainland Chinese literature and Taiwan literature, while it still maintains the nature of the original literature source. Second, Hong Kong literature is a good example the society faced with various interactions of different literatures. This study explores the characteristics and category of Hong Kong literature in this direction.

Hong Kong literature has the characteristics of its own that distinguishes itself from mainland Chinese literature and Taiwan literature: variety of literary thoughts, commercialism of creative writing, fluidity of writers, exchange of literary activities with other regions, intermediation between mainland Chinese literature and Taiwan literature, urban features of literary works, prevalence of popular literature including 'Kuangkuang Zawen', and so on. I claim that 'Hong Kong literature' should include the works written in Chinese by 'Hong Kong writers' who have lived in Hong Kong at least for a certain time, whose works and activities practically have organized a part of the literary phenomenon of the literature in Hong Kong and influenced on that.

Hong Kong was returned to China on July first, 1997. Hong Kong's return is

not just a new development in the political or economic fields. Literature is also important and should not be dismissed. We need to make further research into new changes and position of Hong Kong literature in Chinese literature, for Hong Kong literature has a significant position as a core of Chinese literature 'network'.

중심어: 홍콩문학, 독자성, 범주